

2019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②	2	③	3	④	4	⑤	5	⑤
6	①	7	④	8	⑤	9	②	10	②
11	⑤	12	②	13	④	14	⑤	15	①
16	①	17	④	18	③	19	②	20	③
21	⑤	22	③	23	⑤	24	①	25	①
26	④	27	①	28	①	29	③	30	①
31	②	32	④	33	②	34	①	35	③
36	⑤	37	④	38	③	39	⑤	40	④
41	④	42	②	43	②	44	④	45	③

해설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계획을 평가한다.

발표자는 특정한 자료를 제시하며 발표하고 있지 않으며, ‘기’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 ‘KI’를 많이 쓰고 있다는 발표 내용의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5문단에서 여권 종류의 알파벳 약자 조합의 예, 로마자 이름 표기의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찍는 자세를 취하며’ 등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발표자의 질문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여권과 비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3문단에서 청중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는 등, 발표자와 청중의 상호 작용이 나타나 있다. ⑤ 1문단에서 발표할 내용을 여권의 개념, 여권 발급 신청 시 준비물과 유의점, 여권 기재 정보로 안내하여 청중이 이후에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발표 내용을 이해한다.

2문단에서 여행할 나라로부터 받는 입국 허가는 ‘비자’임을 알 수 있다. 여권 번호는 ‘비자’와 관련이 없다. 5문단에서 여권 번호는 여권 종류를 나타내는 알파벳과 숫자 여덟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숫자는 무작위로 부여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 여권에 수록할 사진은 정면을 바라보고 얼굴 전체가 드러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PM’이 유효 기간 동안 여러 번 출입국에 사용할 수 있는 여권 종류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기호’라는 이름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GIHO’로 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2020년부터 발급될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이 기재되지 않을 예정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청자의 듣기 전략을 파악한다.

6문단에서 여권을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 내용과 관련하여, <보기>의 청자는 자신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볼 때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였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유사한 상황에 적용하여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학생이 발표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떠올린 의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학생이 발표를 들으며 파악한 내용 조직 방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학생이 발표를 들으며 정보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 관계를 파악한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듣기 과정을 점검하는 사고도 나타나 있지 않다.

4. [출제의도] 대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㉔은 학생 1이 천체 연구 자율 동아리의 부원 모집을 블로그를 통해서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발화이다. 이를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발화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추가 질문을 던진다는 것 역시 발화 상황을 설명하는 말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자신이 던진 질문 “어떤 것을 별이라 하는지 알아?”와 관련하여 태양과 지구의 예를 제시하여 학생 2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계절에 따라 잘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다는 거 알고 있냐는 학생 1의 질문에 대해 학생 2는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언급하며 답하고 있다. 이는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답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북반구의 별자리 이름의 유래와 관련한 학생 1의 말을 듣고 학생 2는 남반구 별자리 이름에 대한 자신의 추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의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은 학생 2가 천체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관심사를 언급한 것에 해당한다. 이는 천체 연구 자율 동아리를 함께 만들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발화이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대화 참여자의 문제 해결의 방법을 파악한다.

학생 1은 학생 2가 앞에서 한 제안인 전문 서적을 함께 읽고 공부하자는 말에 대해 다른 부원들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교양서적을 함께 읽고 공부하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제안한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 2는 정기적으로 천문대에 가서 별자리를 관측하자는 학생 1의 제안에 대해 천문대가 학교에서 가깝지 않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학교 운동장에서 별자리를 관측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역시 상대방이 제안한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이나 학생 2 모두 상대방이 제안한 방안을 자신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② 학생 1이나 학생 2 모두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제안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자신이 제안한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학생 1은 자신이 제안한 방안의 장점만 언급하고 있을 뿐 단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학생 2는 상대방이 제안한 방안의 단점을 지적할 뿐 장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며 대안을 제시할 뿐이므로 자신이 기준에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6.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을 쓴다.

ㄱ에는 동아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나타날 뿐 별자리나 우주에 대한 생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답풀이] ② 우주를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한 우물이라 말하고 있으므로 우주에 대한 생각이 비유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우주를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서 동아리에 지원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동아리 지원 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별자리가 보석처럼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별자리의 아름다움을 사진을 찍어 남기겠다는 활동 각오를 드러내고 있다. ④ 별자리를 불꽃놀이같이 화려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천문학자가 되려는 꿈에 다가가기 위해 동아리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동아리 지원 동

기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우주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이라 하고 있으므로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우주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동아리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동아리 지원 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작문 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쓴 글의 내용을 비교한다.

(나)의 3문단에서 동아리 활동은 별자리와 우주에 대해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창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을 뿐 동아리 활동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의 1문단에서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별자리와 우주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동아리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② (나)의 2문단에서 천문학, 우주에 관심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별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누구나 동아리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③ (나)의 2문단에서 추천 도서를 함께 읽고 이야기하기, 별자리 관측하기, 사진전 열기 등의 활동 계획이 기술되어 있다. ⑤ (나)의 3문단에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블로그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블로그를 방문하여 동아리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8. [출제의도] 작문 계획을 이해한다.

‘1인 방송’에 대한 학생의 초고에는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1인 방송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1인 방송의 개념과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1인 방송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1인 방송이 청소년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1인 방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보기>의 ‘조사 자료’는 1인 방송 콘텐츠 조회 수 증가에 따라 제작자의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이다. 그리고 ‘인터뷰’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방송했을 때 조회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뷰이다. 따라서 두 자료를 모두 활용하는 방안은 ‘1인 방송에서 자극적인 콘텐츠가 늘어나는 이유가 조회 수가 제작자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이다.

[오답풀이] ① ‘1인 방송에 대해 청소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자극적인 콘텐츠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은 ‘인터뷰’와는 관련이 되지만 ‘조사 자료’와는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③ 두 자료 모두 자극적 콘텐츠를 즐기는 청소년의 급증이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④ 두 자료 모두 콘텐츠의 다양성 추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⑤ ‘1인 방송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1인 방송을 조회하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요인이 된다.’라는 내용은 ‘인터뷰’와는 관련이 되지만 ‘조사 자료’와는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을 이해한다.

㉔은 1인 방송 진행자가 청소년의 장래 희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인 방송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된 이유를 설명하는 2문단 내용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4문단은 1인 방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는 문단이다. 따라서 문단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㉔을 4문단의 마지막 문장 뒤로 옮겨야 한다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제시’는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임.’이라는 의미를 지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어휘이므로 ㉠에는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이라는 의미를 지닌 ‘제공’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은 앞의 ‘배경으로는’을 고려할 경우 ‘된 점이다’가 아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그래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등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반면 ‘또한’은 ‘거기에다 더’라는 의미를 지닌 접속 부사이다. 문맥상 ㉢의 앞뒤 문장은 모두 1인 방송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열하고 있으므로 접속 표현을 ‘또한’으로 고쳐야 한다. ⑤ ㉤은 피동 표현인 ‘-되다’와 ‘-어지다’가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사용된 것이므로 ‘노출될’의 형태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와 쓰임을 이해한다.

제시된 자료를 통해 ‘-쟁이’는 어떤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낮잡아 이룰 때 쓰이는 말이고, ‘-장이’는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술자’의 뜻일 때 붙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서 ‘대장쟁이’는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쇠를 달구어 연장 따위를 다루는 일인 ‘대장일’을 하는 ‘기술자’를 의미하므로 ‘-장이’가 붙고 ‘중매장이’는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인 ‘중매’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쟁이’가 붙는다. 따라서 (1), (2), (3)의 예로 ‘육십쟁이, 중매쟁이, 대장장이’를 추가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 자료 (1)~(3)에서 ‘-쟁이’와 ‘-장이’는 ‘고집, 거짓말, 노래, 그림, 땀, 웅기’의 명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④ 자료 (1)~(3)에서 ‘-쟁이’와 ‘-장이’는 명사인 ‘고집, 거짓말, 노래, 그림, 땀, 웅기’와 결합하여 ‘고집쟁이, 거짓말쟁이, 노래쟁이, 그림쟁이, 땀장이, 웅기장이’의 단어를 만들었다. 결합 전후를 비교할 때 품사는 변화하지 않는다.

12. [출제의도] 관형사와 관형어의 분류 기준을 이해한다.

품사는 단어를 의미, 형태, 기능으로 분류한 갈래를 의미한다.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단어의 품사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분류한다. 문장 성분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주성분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 부속 성분에 관형어, 부사어가 있으며, 독립 성분에 독립어가 있다. <자료>의 1문단은 관형어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즉 문장 성분에 따라 분류된 것임을 밝히고, ‘체인 앞에서 그 뜻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자료>의 5문단은 관형사에 대해 ‘체인 앞에서 체인의 뜻을 꾸며주는 품사’라고 정의하면서, 관형사가 품사에 따른 분류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관형사의 특성으로서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13. [출제의도] 관형어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c에서 ‘남자의 친구’는 ‘성별이 남자인 이와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의’를 생략하여 ‘남자 친구’가 되면, ‘성별이 남자인 친구’나 ‘이성 교제의 대상으로서의 남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의미에 변화가 생긴다.

[오답풀이] ① a~d는 체인 ‘친구’를 꾸며 주어 어떠한 친구가 여기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② 체인 ‘고향’은 관형격 조사 ‘의’ 없이 체인 ‘친구’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어로 볼 수 있다. ③ ‘예쁜’의 기본형은 ‘예쁘다’로, 어간 ‘예쁘-’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예쁜’, ‘예쁠’ 등의 관형어를 만들 수 있다. ⑤ ‘옛’은 ‘친구’의 의미를 꾸며주면서 조사가 결합하지 않고 활용이 불가능한 단어이므로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경우로 볼 수 있다.

14. [출제의도] 음운 동화의 특징을 탐구한다.

‘활동 1’과 ‘활동 2’에 따르면 ‘000100’로 표시하는 경우는 순행 동화이고 ‘001000’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역행 동화이다. ‘활동 자료’의 발음을 바탕으로 단어를 숫자로 표시하면 ‘잡념[잡념]’은 ‘001000’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역행 동화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국민’은 ‘0010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역행 동화이다. ② ‘글눈’은 ‘0001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순행 동화이다. ③ ‘명량’은 ‘0001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순행 동화이다. ④ ‘신량’은 ‘0010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역행 동화이다.

15. [출제의도] 높임법의 유형을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문장들에서 ㄱ은 부사격 조사 ‘계’와 서술어 ‘드리다’를 활용하여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고, ㄴ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서술어 ‘계시다’를 활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고, ㄷ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서술어 ‘가시다’를 활용해서는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서술어 ‘모시다’를 활용해서는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객체 높임법만 사용된 문장은 ㄱ, 주체 높임법만 사용된 문장은 ㄴ, 객체 높임법과 주체 높임법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ㄷ임을 알 수 있다.

[16~20] (시가복합) (가) 신희, 「방웅시여」/(나) 오세영, 「너의 목소리」

(가) 신희, 「방웅시여」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신희이 계축옥사에 연루되어 김포에 방축되었을 때 쓴 것으로 추정되는 30수의 시조 모음 중 세 수를 제시한 것이다. ㉠은 산촌에서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겠다는 은둔을 지향하는 뜻을 밝히고 있다. ㉡는 가을 낙엽 소리에 ‘임’이 오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어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은 어지러운 세상사를 살아가며 생기는 깊은 시름을 말로 다 못하여 노래를 통해 풀어보고자 하는 화자의 정서를 담고 있다.

참고로 이 작품의 제목을 여느 시조처럼 「방웅시여」라고 부르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보기>에서 설명했듯이 이 작품은 신희이 쓴 시조 30수를 모아 놓은 것이다. 작품명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진본 『청구영언』에 신희의 시조 30수가 수록되어 있고 그 마지막에 작가가 「방웅시여서」라고 서문을 적고 있기 때문이다. ‘방웅’은 작가가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이고 ‘시여’는 시조를 일컫는 말이다. 이 시조를 연시조로 보느냐, 연작 시조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 중이다.

(나) 오세영, 「너의 목소리」

이 작품은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아름답게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너’를 꿈꾼 밤에 문 밖 인기척에 잠을 깨며 혹시 ‘너’가 온 것이 아닐까 귀 기울인다. 소리는 점점 발자국 소리, 나뭇가지 스치는 소매깃 소리로 들려오고 너의 목소리까지 들리는 듯하지만, 반가움에 문을 열고 나가 보았으나 결국 소리의 정체가 빗소리임을 안 후 슬픔과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빗소리를 ‘너’의 기척으로 착각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화자의 ‘너’에 대한 그리움에 있다.

16.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의 ㉡에서 ‘어즈버’는 ‘아’라는 의미의 감탄사로 영탄적 표현에 해당하고, ㉠의 ‘귀 벋인가 하노라’와 ㉢의 ‘시름도 하도 할샤(많기도 많구나)’에서 영탄적 표현이 엿보인다. (나)는 ‘아아, 네가 왔구나’, ‘오냐, 오냐’에서 영탄적 표현이 드러난다.

[오답풀이] ② ‘봄비 소리’에서 보듯이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는 것은 (나)에만 해당된다. ③ 의문형 진술은

㉠에서 ‘뉘 있으랴’, ㉡에서 ‘무슨 일이고’ ㉢에서 ‘풀었던가’와 같이 (가)에만 해당된다.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가) ㉠에서 ‘열지 마라’가 있지만 친근감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나)는 청자 ‘너’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며 친밀함을 부각하고 있다. ⑤ (가)의 ㉠에서 ‘일편명월’을 ‘귀 벋’이라 하며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나)에서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17.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의 ㉡와 (나)의 시적 상황에서의 공통점은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그리움으로 인해 ‘낙엽’ 소리와 ‘빗소리’를, ‘임’이나 ‘너’가 오는 소리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 현상에 대해 착각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정서에 있는 것이지 ‘가을’이나 ‘봄’, 혹은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가을이라서 그림엽, 봄이라서 그리운 것이 아니라 그림기 때문에 ‘낙엽’ 소리도, ‘빗소리’도 ‘임’과 ‘너’의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움의 마음일 때는 세상 모든 것이 그리움으로 보이고 그리움으로 들린다.

[오답풀이] ① (가)의 ㉡에서 ‘낙엽’, (나)에서 ‘봄비’를 통해 계절적 이미지가 분위기 형성에 기여함을 엿볼 수 있다. ② (가)의 ㉡의 ‘위석버석’은 낙엽 밟히는 소리로 청각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나)에서도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화자는 외부 소리를 통해 ‘임’과 ‘너’가 온 것이라 판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상황 판단의 근거로 감각적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③ ‘임’과 ‘너’가 왔다고 생각한 각각의 화자가 일어나고 뛰쳐나가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⑤ 부재하는 대상에 대해 귀 기울이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 확인한 후 안타깝게 여기는 과정 전체가 화자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작품 간 시구의 의미를 비교한다.

(가)의 ㉠에서 화자가 ‘시비(사립문)를 열지 마라’는 것은 외부 세계를 차단하려는 뜻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뒤 구절에서 ‘날 찾을 이 뉘 있으랴’고 말한 것을 통해 ㉠에서의 단절감이 더욱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 ‘문을 열고’는 문밖에 ‘너’와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나가려는 행동이다. 따라서 ㉢에는 화자의 기대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에서 화자는 문을 열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고, ㉢에서 화자는 ‘너’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② ㉢에 억울한 심정이 내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냉소’란 비웃음을 의미한다. ㉠이 냉소적 태도를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조’란 조용한 마음으로 대상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을 이른다. ㉢은 그리움의 정서가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작품이므로 관조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두 작품 모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1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에 의하면, (가)는 정계에서 축출된 작자가 자연에 은둔하며, 임금을 그리워하고, 세상사에 대한 근심을 풀 길 없어 노래를 불러 보고자 하는 면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편명월’은 작가의 분신이라기보다 작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자연 세계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고독한 처지를 부각하는 자연물이자, 유일하게 벗이 되어줄 만한 자연물로서의 ‘달’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산촌’은 작가가 지향 내지 은둔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세상과 대비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에 의하면 ㉡는 연군의 시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은 임금으로 파악되고, ‘유한한 ~ 하노라’에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안

타까움을 담은 신하의 심정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정계에서 축출된 작가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시름’은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며 생기는 세상사에 대한 염려나 작가의 복잡한 심경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③에서는 ‘노래’의 기능이 세상사의 시름을 풀어내는 데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가의 우리말 시가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즉 말로 다 표출하지 못한 심회를 시조로는 풀 수 있다는 것으로, 시름을 푸는 것이 시조의 본질이며 우리나라 사람이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갈래로서 시조의 존재 가치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20. [출제의도] 작품의 의미를 파악한다.

시에서 ‘서역’은 일반적으로 저승을 의미할 때가 많다. (나)에서 ‘너’가 화자가 있는 곳까지 오기 위해 ‘산 넘고 물 건너’ 와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멀고 험한 곳에서 온다는 뜻이다. 특히 ‘누런 해지지 않는 서역 땅’을 통해 ‘너’의 죽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들리는 ‘너의 목소리’는 실체가 아닌 ‘너’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들리는 환청과도 같은 것이다. 화자는 ‘아아, 내가 왔구나.’라고 반가움을 표현하고 있으나 과거의 추억을 환기하고 있는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너’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꿈’을 꾸고 빗소리를 ‘발자국 소리’로 착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너’에 대한 그리움이 커갈수록 빗소리를 ‘발자국 소리’에서 ‘너의 목소리’로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됨을 엿볼 수 있다. ④ 비는 하강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화자는 ‘너’를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문’을 열지만 그 순간 ‘너’의 부재를 더욱 확인할 뿐이다. 따라서 ‘하염없이 내리는’에는 ‘너’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화자의 좌절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기대감이 고조되었던 만큼 ‘너의 목소리’가 빗소리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의 허탈감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심정이 ‘후두둑’을 통해 청각적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1 ~ 24] (예술) ‘엑스레이 아트’

엑스레이 사진을 활용하여 만든 예술 작품을 의미하는 엑스레이 아트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엑스레이 아트의 거장인 닉 베세이는 엑스레이를 활용하여 오브제 내부에 주목한 작품을 만들었다. 또한 작품을 통해 현대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엑스레이 아트의 창작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질, 두께, 크기 등의 오브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엑스레이로 촬영된 사진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거치는데, 창작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하기도 한다. 엑스레이 아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감상자들에게 기존의 예술 작품과는 다른 미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현대 예술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5문단에서 엑스레이 아트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엑스레이 아트의 발전 양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②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 3,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④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한다.

엑스레이가 투과되지 않는 효과를 이용하는 것은 오브제의 재질과 두께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보기>에서 버스의 측면이 보이도록 촬영한 것은 인체 골격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촬영 각도에 따라 엑스레이가 투과되지 않는 효과를 이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엑스레이 아트는 물체를 투과하는 엑스레이를 이용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이러한 엑스레이의 특성을 이용해 일상적 시선으로는 볼 수 없는 버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골격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작가는 작품의 창작 의도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바퀴나 차체 등의 일부 구성 요소들만 선택하였다. 즉 창작 의도를 구현하는 데 오브제의 모든 구성 요소가 필요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⑤ 엑스레이 필름보다 큰 실제 크기의 버스와 사람을 오브제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여러 장의 사진으로 촬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으로 촬영한 사진이 한 번에 촬영한 사진처럼 보이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각 사진의 명도를 보정하고 퍼즐처럼 맞추어 합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엑스레이 아트는 오브제의 골격이나 구조를 노출하는 기술로, 드러나지 않는 오브제 내부에 주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창작 의도를 드러낸다. 특히 기존의 예술 작품과는 다른 미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현대 예술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보아 엑스레이 아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오브제 내부를 의도적으로 보여 주어 예술의 영역을 확장한 예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음.’을 뜻하는 말은 ‘개발’이다. ‘개척’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 따위를 처음으로 열어 나감.’이다.

[25 ~ 27] (현대소설) 송기숙, 「당제」

이 작품은 1983년에 발표된 송기숙의 소설로, 제목인 ‘당제’란 마을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한물 영감’ 내외는 삼십 년 전 6·25 때 의용군으로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부부는 아들이 북쪽에 살아 있다고 믿는데, 이는 ‘한물영감’이 꾸는 꿈 때문이다. 미륵보살 곁에 서 있는 ‘한물 영감’의 꿈을 꾸는 다음 날, ‘한물영감’은 징용에 끌려갔던 남편의 사망 통지서를 받는다. 그러나 그녀는 미륵보살이 남편을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한물 영감’은 살아서 돌아온다. 그런데 아들이 지리산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난 상황에서 ‘한물영감’이 미륵보살 옆에 서 있는 아들의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한편 댐 건설로 인해 마을은 수몰될 처지에 놓이고, ‘한물 영감’은 마을에서 지내는 마지막 당제의 제주(祭主)가 되기를 자청한다. 당제가 끝난 뒤 ‘한물 영감’은 홀로 남아 도깨비들에게 아들의 안전을 부탁하는 말을 전한다. 그 후 ‘한물 영감’ 내외는 마을이 수몰된 이후에도 댐 근처에 집을 짓고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세운 뒤 그곳에서 살아간다. 이 작품은 당제, 도깨비 등의 민속 신앙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서 6·25 전쟁, 근대의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겪어온 아픔을 극복해 나가려는 감내골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25.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이해한다.

이 작품은 ‘한물 영감’과 ‘한물영감’이 사용하는 방언을 통해 인물의 대화를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댐과 오두막집의 풍경을 묘사하여 배경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ㄴ. 제시된 부분에는 반복되는 사건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도 나타나 있지 않다. ㄷ. 이 작품은 작품 밖 서술자가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6.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적 내용을 파악한다.

‘한물 영감’은 자신이 갯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십장’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십장 역시 갯에 간헐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탄광 사람들은 내가 갯도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었을 거야.’는 ‘한물 영감’이 회상했을 법한 내용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예사 때도 지나새나’ 탄광을 탈출할 ‘궁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낙반 사고 이전에는 탈출을 감행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낙반 사고 이후 ‘한물 영감’은 갯에 갇힌 동료들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도망치기에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탈출을 결심하고도 동료에 대한 의리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갯사정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던 영감은 그들을 구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갯도가 붕괴되었을 때 나도 동료들을 구하려 노력했었지.’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한물 영감’은 ‘십장’ 외에는 자신이 갯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갯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십장이 몰라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는 이 작품의 두 축인 ‘역사’와 ‘신앙’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으로,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편의 사망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한물영감’이 ‘미륵보살’의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미륵바위’ 앞에서 치성을 드린 것은 ‘미륵보살’이라는 존재가 남편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한물영감’의 확신은 꿈이 소망을 이루어주어 초월적 세계를 구현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남편이 갯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물영감’이 ‘미륵바위’를 찾은 것은 ‘미륵보살’이라는 신령한 존재를 통해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보여 준다. ③ ‘한물 영감’은 ‘도깨비’가 북쪽에 있는 아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들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현실의 소망을 ‘도깨비’라는 초월적 존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④ ‘댐’의 건설로 인해 감내골이 수몰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야 했던 상황은 ‘산업화 시대’에 ‘농촌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반영한다. ⑤ ‘한물 영감’ 내외는 아들이 북쪽에 살아 있을 것이라 믿으며 아들이 돌아올 때 무사히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세운다. 부부가 아들이 살아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한물영감’이 꾸는 ‘미륵보살’의 꿈과 관련이 있으므로, 초월적 존재가 아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그들이 수몰 이후에도 삶을 지탱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8 ~ 33] (인문사회복합) 안서원, 「심리학, 경제를 말한다」

심리학적 입장에서 인간의 선택 행동을 설명한 카너먼의 전망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제 아래,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연구한다. 전통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인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대안이 여럿일 때 각 대안의 효용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최대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하지만 카너먼은 실제 인간의 행동에 나타난 다양한 양상을 연구한 결과, 이러한 전통 경제학의 전제에 반기를 들고,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가 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설명하는 전망 이론을 제안한다. 전망 이론에 따르면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득감보다 손실감을 더 크게 느낀다. 이와 같은 이득과 손실에 대한 심리 반응의 차이로 인해 ‘틀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 상황이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지, 손실을 주는지에 따라 ‘긍정적 틀’과 ‘부정적 틀’로 나눠 인식한다. 그 결과 긍정적 틀에서는 확실한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고, 부정적 틀에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즉, 이득의 영역에서는 확실한 이득을 추구하는 위험 회피 성향을, 손실의 영역에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추구하는 위험 추구 성향을 나타낸다. 카너먼은 인간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주목하여 행동 경제학을 개척하였다.

28. [출제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5문단의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은 현재 ‘나’의 상황을 의미하는 준거점’이라는 설명과 1문단의 ‘그는 실제 인간의 행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연구하여’, 마지막 문단의 ‘인간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주목하여’ 등의 내용을 종합할 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준거로 하여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한 이론은 기대 효용 이론이 아니라, 카너먼의 이론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2문단의 ‘전통 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인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대안이 여러 개일 때 각 대안의 효용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최대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1문단의 ‘심리학자인 카너먼은 인간이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킨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의 ‘그는 실제 인간의 행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연구하여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전제에 반기를 들고’와 마지막 문단의 ‘카너먼은 이러한 전제를 비판하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9. [출제의도] 사례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매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률을 더 많이 접한다는 이유를 들어, 교통사고의 사망률이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높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해서 발생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신이 없음을 증명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는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② 더 많은 숫자를 더하기 때문에 합이 크다는 판단은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④ 숫자를 어떻게 표기했느냐에 따라 지방의 함유 정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⑤ 더 많은 빵을 만드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느끼는 것은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없다.

30. [출제의도] 제시된 자료를 이해한다.

<그림>에 제시된 그래프를 보면, x 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의 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이다. 그런데 이득 영역에서는 x 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득 영역에서 성과가 동일한 크기로 증가할 때마다 성과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가 증가하는 폭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② x 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므로 가치의 크기가 증가하는 폭이 커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x 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므로 가치의 크기가 증가하는 폭이 작아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⑤ x 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의 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이므로 가치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1. [출제의도]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7문단에 의하면,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 회피 성향을,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 추구 성향에 해당한다. ㉠안과 ㉡안을 선택한 사람은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므로 위험 추구 성향에 해당하고, ㉢안과 ㉣안을 선택한 사람은 확실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므로 위험 회피 성향에 해당한다. 따라서 ㉠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위험 추구 성향이므로, 이를 위험 회피 성향이라고 하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카너먼의 전망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이득감보다 손실감을 더 크게 느낀다. 이를 ‘상황 1’과 ‘상황 2’에 적용해 보면, ㉢안의 50만 원을 얻었을 때의 이득감보다 ㉣안의 50만 원을 잃었을 때의 손실감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의 50만 원과 ㉣안의 50만 원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는 다르게 된다. ③ ㉠안과 ㉡안은 0.5의 확률로 돈을 받거나 잃는 상황이므로 불확실한 대안에 해당하고, ㉢안과 ㉣안은 1의 확률로 돈을 받거나 잃는 상황이므로 확실한 대안에 해당한다. ④ ‘상황 1’에서 ㉢안을 선택한 사람들은 확실한 이득을 추구하는 위험 회피 성향을 나타낸다. ⑤ ‘상황 2’에서 ㉣안을 선택한 사람들은 확실한 손실을 꺼리는 위험 추구 성향을 나타낸다.

3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유를 추론한다.

전망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기>에 적용하면, 소비자들이 구매 물품을 반쯤할 때 느끼는 손실감이 구매 금액을 환불받았을 때의 이득감보다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을 반품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만큼 제품을 통해 얻는 이득감이 줄어드는 것은 제품을 반품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② 제품에 대한 불만족은 심리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설명은 전망 이론의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 ③ 제품을 반품했을 때의 이득감이 제품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의 이득감보다 더 크다면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을 계산했을 때,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제품을 반품하지 않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한다.

<보기>에 제시된 상황은 400명의 사람이 죽거나(프로그램㉠),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600명이 죽게 될 확률이 3분의 2(프로그램㉡)인 상황이다. 이는 손실을 주는 상황이므로 사람들은 이를 부정적 틀로 인식한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손실이 확실한 프로그램㉡보다 손실이 불확실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다.

[34 ~ 38] (과학) 이남영·정태문, 「교양인을 위한 물리 지식」

이 글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위성 항법 장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위치를 파악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GPS는 GPS 위성과 GPS 수신기 등으로 구성되는데, GPS 위성은 현재 시각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를 신호로 보내고, GPS 수신기는 그 신호를 받은 시각과 위성이 신호를 보낸 시각을 비교해, 신호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구한다. 그렇게 구한 시간

을 바탕으로 신호의 이동 속력인 빛의 속력을 곱하면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상대성 이론을 고려해야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GPS 수신기의 위치는 세 개 이상의 위성 위치를 알고, 각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삼변 측량법이라는 방법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이는 세 개의 원의 교점이 하나인 것을 이용하여 평면에서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다만 실제 우주 공간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이기 때문에, 세 개의 구에서 두 개의 교점이 생기는데, 한 개의 교점은 지구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GPS 수신기의 위치는 나머지 한 점이 된다.

34.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을 이해한다.

GPS에서 수신기의 위치를 파악할 때 사용되는 원리인, 삼변 측량법과 상대성 이론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은, ‘GPS에 적용된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GPS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GPS와 다른 대상을 비교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GPS의 종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GPS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5.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 정보를 파악한다.

GPS 수신기는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위성과 수신기까지의 거리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다. GPS 위성은 신호를 보내고 GPS 수신기는 이를 받기만 하므로, GPS 수신기가 GPS 위성에 신호를 보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2, 3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GPS 위성은 약 20,000 km 이상의 상공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정해진 궤도를 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으로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GPS를 이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을 통해 이동 거리는 이동 시간에 이동 속력을 곱해서 구할 수 있으며, GPS 위성이 보낸 신호의 속력은 빛의 속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GPS 위성과 수신기 간의 거리를 빛의 속력으로 나누면 위성의 신호가 수신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삼변 측량법은 기준점의 위치 및 대상과 기준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대상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6. [출제의도] 정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한다.

물체의 속력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빠른 속력으로 이동하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중력이 약하게 작용하면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데 원자시계의 시간은 지표면의 시간에 비해 매일 약 38.6 μ s씩 빨라진다. GPS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력보다 빠르게 지구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 비해 시간이 느리게 흘러 위성의 시간은 하루에 약 7.2 μ s씩 느려진다. 그리고 위성은 높은 고도에 있기 때문에 중력이 지표면보다 약하게 작용해 지표면에 비해 시간이 하루에 약 45.8 μ s씩 빨라지게 된다. 즉 GPS 위성에는 시간을 빠르게 하는 요소와 느리게 하는 요소가 모두 작용하는데, 시간이 빨라지는 이유는 중력으로 인해 시간이 빨라지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3문단의 ‘또한 위성은 약 20,000 km 이상의 상공에 있기 때문에 중력이 지표면보다 약하게 작용해’를 통해 GPS 위성은 지표면보다 높은 곳

에 있어 중력이 약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의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력보다 빠르게 지구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 비해 시간이 느리게 흘러’를 통해 GPS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력보다 빠르게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GPS 위성의 원자시계가 빠르게 흐르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속력과 중력이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 방향과 같다는 것을 이유로 볼 수 없다. ④ GPS 수신기가 GPS 위성의 신호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GPS 수신기와 위성 사이의 거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GPS 위성에는 원자시계의 시간이 지표면에 비해 빨라지는 이유로 볼 수 없다.

3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P₁과 P_x 사이의 거리인 r₁이 P₂와 P_x 사이의 거리인 r₂보다 짧으므로, P₁이 송신한 신호가 P_x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P₂가 송신한 신호가 P_x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보다 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2문단을 통해 GPS 위성은 자신의 위치 정보 및 시각 정보를 담은 신호를 지구로 송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을 통해 GPS 위성과 GPS 수신기의 거리는 GPS 위성이 보낸 신호가 수신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통해 계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₁ ~ r₃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GPS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GPS 위성이 보낸 신호가 P_x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GPS 위성에서 보낸 신호가 GPS 수신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실제보다 짧게 계산된다는 것은, $r = t \times c$ 에서 t값이 작게 계산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호가 이동한 시간이 실제보다 짧게 계산되면 그만큼 r값도 실제보다 작게 계산된다. ⑤ 6문단을 통해 세 구의 교점은 두 개가 나오고, 그 중 지표면에 가까운 교점이 GPS 수신기의 위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8. [출제의도] 어휘 선택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탐제’는 ‘배, 비행기, 차 따위에 물건을 실음.’의 의미이므로, ‘탐제된’은 ‘태운’이 아닌 ‘실린’으로 바뀌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태우다’는 ‘탈것에 몸을 얹게 하다.’의 의미이고, ‘신다’는 ‘물건을 운반하려고 차·배·수레·짐승 따위에 엮다.’의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다’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할 때는 ‘태우다’가 적절한 표현이다.

[39 ~ 41] (시나리오) 김영현, 「대장금」

이 작품은 어려서 부모를 잃은 장금이 궁궐의 수라간 궁녀로 들어가서 온갖 고초를 겪은 끝에 의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영상화한 드라마 「대장금」의 시나리오 대본이다. 수라간에 들어간 어린 장금은 한 상궁으로부터 음식을 만드는 자의 도리를 배우게 되고, 이를 지키며 중국 사신을 위한 음식을 만들게 된다. 기름진 음식에 익숙해 있던 사신은 장금과 한 상궁이 만든 음식을 처음에는 싫어하지만 나중에 그 음식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리게 된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 문화의 가치를 잘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39. [출제의도] 작중 상황을 이해한다.

정사는 가는 날까지 자신의 음식을 고집불통인 장금과 장금의 스승인 한 상궁에게 맡긴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사는 떠나는 날까지 음식을 준비하라고 할 만큼 장금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한 상궁이 정사의 뜻을 알고 장금에게 음식을 준비하도록 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정사의 음식을 준비한 것은 장금 혼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오겸호는 장금을 불경한 것이라고 하며 정사에게 벌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

절하지 않다. ④ 정사는 만한전식을 올린다는 오겸호의 말에 놀라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의해 작품을 감상한다.

정사가 만한전식을 먹는 것은 음식을 먹는 자의 도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사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장금이 정사가 음식을 먹는 자의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으며, 이를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정사는 그동안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 소갈을 얻었음에도 그런 음식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② 장금은 자신이 올린 음식을 먹고 싶은 표정을 짓는 정사를 보며 생선과 산나물 등의 음식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정사의 질문에 먹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음식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장금은 정사의 건강을 위해 생선과 산나물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정사는 장금의 음식을 먹을수록 재료 고유의 맛이 느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금이 만든 음식에서 건강과 맛에 대한 욕망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⑤ 장금은 자신에게 크나큰 위험이 닥쳐도 음식을 하는 자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정사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위험을 무릅쓰고 음식을 하는 자의 도리를 지키고자 하는 소신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시나리오로 작품 제작의 과정을 이해한다.

S#49는 장금이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정사가 시식하는 장면, 정사가 시식을 하며 반응하는 장면이 일련의 순서에 따라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사신의 시식’ 이후에 ‘장금의 기대’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음식에 대한 장금의 정성을 강조하는 것이 장금이라는 인물의 성격에 부합하므로 적절하다. ② ‘다음날’이라는 표지를 통해 이틀 간의 사건을 몽타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불안해하는 오겸호가 담긴 장면이 반복되며 장금을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정사의 말을 통해 정사가 사신으로 조선에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 45] (교전소설) 작자미상, 「신유복전」

조선 시대 신유복의 영웅적 일대기를 잘 보여 주고 있는 교전소설이다. 아버지의 꿈에 선관이 나타나 점지하여 태어난 신유복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유리결식한다. 상주 목사가 그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호장의 딸인 경패와 혼인하게 하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경패와 함께 집에서 쫓겨나 고난을 겪는다. 그러나 경패의 의지로 유복이 학문을 닦아 입신출세하게 되고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물론 위기에 빠진 중국을 구하는 등의 영웅적 활약상을 보인다. 이를 통해 유복의 비범한 영웅으로서의 행적을 보여 주며 흥미를 느끼게 하는 한편 민족적 자부심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에서는 신유복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유리결식하다가 고난에 처하지만 경패와 혼인을 하면서 과거에 급제하고 입신출세하는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42.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이 소설에는 ‘유복은 ~ 군자였다.’, ‘고어에 ~ 던져두시겠는가.’ 등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서술자가 직접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서술이 잘 나타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소설에서는 장면이 순간적으로 전환되면서 사건의 환상적 면모가 부각되는 부분은 살펴볼 수 없다. ③ 이 소설에서는 장면마다 서술자를 달리 하는 서술은 살펴볼 수 없다. ④ 이 소설에서는 특별히 시대적 배경을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살펴볼 수 없다. ⑤ 이 소설에서는 인물의 외양을 과장되게 묘사한다거나 풍자하는 서술은 살펴볼 수 없다.

43.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A]는 경패가 남편 신유복에게 글공부를 할 것을 강력하게 설득하는 내용이다. 동정심에 호소하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연민의 감정을 일으켜 설득하는 말하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는 경패가 동정심에 호소하여 유복으로 하여금 자신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말하기는 살펴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경패가 ‘옛글에 ~ 하였으니’라고 말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경패가 ‘문필을 ~ 바라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유복이 ‘내 어려서 ~ 어찌겠소.’라고 말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유복이 ‘또한 ~ 말이요?’라고 말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44. [출제의도] 속담을 통한 이해의 적절성을 이해한다.

㉠은 유복이 원강 대사 밑에서 공부를 마치고 과거를 볼 때 생긴 일에 대한 경패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유복은 어렵게 과거 시험을 보게 되는데, 글을 쓸 장소가 없어서 때마침 과거를 보러 온 유소현, 김평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온 유복에 대해 유소현, 김평은 소리를 지르며 내쫓는 등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준다. 경패는 이러한 이야기를 몰래 엿듣고 매우 분노하면서 유소현, 김평에 대해 ㉠과 같이 분노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어려운 일에 처해 도움을 요청하러 간 유복을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만든 일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 같은 경패의 마음은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방해만 한다.’라는 뜻의 ‘동냥은 못 쥐도 쪽박은 깨지 마라’와 같은 속담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복을 박대한 유소현, 김평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을 ㉠과 같은 속담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서투른 사람이 잘하는 체하다가 일을 그르친다.’라는 뜻의 속담이다. ② ‘믿는 사람에게서 배신당한다.’라는 뜻의 속담이다. ③ ‘사리에 옳고 그름을 돌보지 않고, 자기 비위에 맞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린다.’라는 뜻의 속담이다. ⑤ ‘옳지 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엉뚱한 수작으로 속여 넘기려 한다.’라는 뜻의 속담이다.

45. [출제의도] 소설의 서사구조를 이해한다.

이 소설은 ‘쫓겨난 여인 발복 설화’가 수용되어 있는 작품이다. ‘쫓겨난 여인 발복 설화’는 친지의 미움을 받고 쫓겨난 여인이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남편을 입신출세시키는 서사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설화의 서사 구조에서 ㉡는 주인공들이 친지에 의해 쫓겨나 고난을 겪는 단계이다. 이 소설에서 ㉡는 신유복과 경패가 호장 부부에 의해 쫓겨나서 곤궁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유복과 경패는 인근 동리 사람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이으며 움집이나마 마련해 곤궁하게 살아간다. 따라서 ㉢에서 신유복과 경패가 인근 동리 사람들에게 게조차 외면을 당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는 과거에 규성이 무주 땅에 떨어져 영웅이 난 줄 짐작하였다는 원강 대사가 말하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는 신유복이 유리결식하다가 경패와 혼인하게 되고 밥을 빌어서 음식을 나눠 먹는 등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는 경패가 신유복에게 글을 읽어 성공해야 한다면 팔 년을 공부하여 이십이 되거든 절에서 내려오라는 뜻으로 신유복이 원강 대사 밑에서 글을 배우게 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는 신유복이 과거 시험에서 ‘만장 중의 제일’일 만큼 뛰어난 글을 써서 대궐로 입시하게 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